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연주 특징에 관한 연구 - Rock And Roll의 스케일을 중심으로 -

박경생, 조태선*
온뮤직실용음악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a2601234@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Feature of Guitarist Jimmy Page - Rock And Roll On a Scale -

Kyung-Saeng Park, Tae-Seon Cho*
On Music Academ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영국의 밴드 Led Zeppelin은 밴드 음악을 예술, 상업적으로 성공을 넘어 블루스, 락, 컨트리 등 음악의 장르를 허무는 기록을 세운다. 이들의 성공에는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Jimmy Page가 존재하기에 가능하였다. 베트남전쟁 등의 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음악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의 영향력은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뮤지션 들로부터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ck And Roll 곡의 중심을 이루는 스케일을 통하여 기타 솔로의 특징과 피킹, 어프로치, 어보이드, 코드, 텐션 노트 등이 곡에 미치는 영향과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 분석하겠다.

1. 서론

비틀즈를 시작으로 보컬, 드럼,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의 4인조 체제가 확립되게 된다. 1960년대 들어서 영국에서 기타의 신으로 추앙받는 Eric Clapton, 미국의 가난한 기타리스트에서 27살 나이에 요절한 Jimi Hendrix, 영국 탑 밴드 중 하나인 Deep Purple의 Ritchie Black More,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로 불리는 Led Zeppelin의 Jimmy Page의 등장으로 Rock 음악은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들의 행보는 음악을 뛰어넘어 사회문제 등의 이슈를 풀고 다니며 젊은 세대들의 우상이 되었다. Jimmy Page는 단순한 8비트 락 음악에서 탈피하여 펑크, 그렌지, 펑키, 발라드 등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로 연주자로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녹음 작업에서 그의 노력은 더욱 힘을 발휘한다. 열악한 1970년 녹음 기술의 한계를 직접 연구하여 마이크의 위치 잡음, 인도의 시타르, 중국의 대징 등의 동양적 악기, 더블링 효과를 도입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영국음악이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석권하면서 영국의 미국 침공이라는 British Invasion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들의 음악은 문화 전반에 걸쳐 동시대의 사람들을 넘어 현재의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Rock And Roll 곡에서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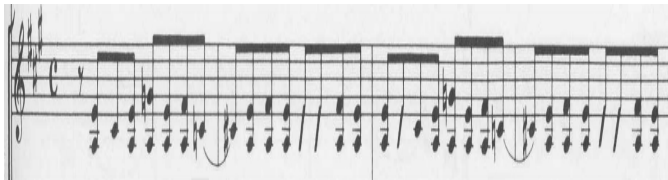
솔로 연주에 사용된 스케일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음악인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2. 본론

앨범 제목이 없는 걸로 유명한 4집의 2번 트랙이다. 각각의 멤버를 상징하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으며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였다. 가요, 팝과 비슷한 3분 40초의 플레이 타임으로 원초적인 락 사운드를 표출한다. 표지에 할아버지가 나와 있어 레드제플린 앨범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록 음악 중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노래이다. Stairway To Heaven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곡으로 여겨진다. 제목 그대로 록큰롤의 흥겨움과 공격적인 사운드가 잘 드러난다. 김슨 레스폴 기타와 마샬 앰프 특유의 두터운 리프 진행으로 시작된다. 디스토션 이펙트를 사용하여 12마디 1도, 4도, 5도의 Blues 음악 특징을 가진다. 지미 페이지의 기타 솔로는, 믹소리디안, 마이너 펜타토닉, 디미니쉬드, 프리지안, 이오니안 스케일을 통하여 다채로운 보이싱을 표현한다. 이러한 스케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믹소리디안 스케일

1도, 4도, 5도의 Blues 8비트 12마디 리프 진행으로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Tow-Tone Voicing 특징을 보이고 있다. A Key Diatonic Chord Scale 1도 Major에서 1도를 Bass Note로 하되 3도와 b3도가 연이어 나오는 이유로 반음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을 가지는 Chromatic Approach로 설명할 수 있다. 임시 제자리표가 붙는 b7도는 A Key Secondary Dominant 7th 1도 Mixo Lydian Scale Chord Note로 쓰이게 된다. 6도는 Tension Note 13th로 8분음표 이상으로 사용하면 불협화음을 뜻하는 Avoid Note, Non Chord Tone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후 3도 Chord Tone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긴장감을 해결해주는 Tension Resolve로 풀이된다. 3도가 들어가서 A Blues Scale로 볼 수도 있겠지만 6도가 나오게 되어 A Mixo Lydian Scale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Mixo Lydian Scale

2.2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두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Two-Tone Voicing에서 Tension Note에서 Chord Tone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긴장감을 풀어주는 Tension Resolve 설명된다. 임시 조표가 붙는 b3도가 나와 Key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3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아 반음계적 접근한다는 뜻의 Chromatic Approach로 해석 가능하다. Major Chord에서 Pentatonic Minor Scale을 사용하는 Blues 음악의 특징으로도 해석된다. 1도 Major에서 임시 제자리표가 붙어 b7도, b3도의 특징을 보인다. A Ionian Scale로 7도, 3도가 나와야 하지만 여기서는 Blues 음악의 특징인 1도 Major에서 A Minor Pentatonic Scale을 쓰고 있다. 1도 Major의 코드 톤 3도와 A Minor Pentatonic Scale의 b3도가 부딪치는 반음 관계가 Blues의 색채를 잘 드러내고 있다. 펜타토닉 스케일의 5음계에서 증4도, 3도를 추가하여 블루스 스케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림 2] Minor Pentatonic Scale

2.3 디미니쉬드 스케일

b6도 (F)와 7도(G#), 6도 (F#)와 루트(A), B7도 (G)와 b2도 (A#), 7도(G#)와 2도(B)를 단 3도 Hammering On, Pulling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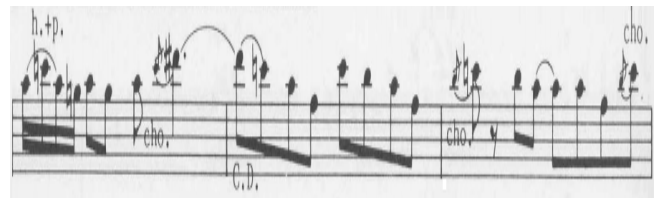
를 사용하여 반음씩 상행하고 있는 이유로 크게 2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반음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의 Chromatic Approach로 이 경우 Key가 바뀌지 않는 경과음으로 해석 가능하나 b7도(G#), 2도(B)가 들어가서 A Diminished Scale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디미니쉬드 단3도로 상행 또는 하행하여 연주하면 같은 구성음이지만 음의 높이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음은 같으므로 연속해서 루트를 바꿔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 Diminished Scale

2.4 프리지안스케일

A Key Diatonic Chord Scale 4도 Major에서 b7도가 나오는 이유로 D Minor Pentatonic Scale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서 b2도가 나오게 된다. Blues에서는 Major 코드에서 Minor Scale을 쓰는 특징이 있다. 꾸밈음은 박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빠르게 음정을 이동하는 시작음의 용도로 쓰인다. 초킹은 일본어의 잔재이고 정확한 명칭은 밴딩이다. 밴딩은 일반적으로 장2도로 음을 올린다. 3번줄이 가장 쉬우면 1번줄이 가장 음을 올리기 어렵다. 줄의 사이즈를 1번줄 기준으로 0.09mm를 사용하면 줄을 올리기 쉬워진다. 이 경우 기타 브릿지와 너트를 나사로 조이는 플로이드르즈 기타에 쓰인다. 작은 막대기 모양의 아밍으로 화려한 테크닉 위주의 기타리스트들에게 많이 쓰인다. 바로크 시대의 클래식과 락을 혼합하여 19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속주 기타리스트 잉베이 맘스틴은 빠른 연주를 위해 손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지판의 나무를 파내고 손가락에 무리가 안가는 0.08mm의 줄을 사용한다. 0.10mm 사이즈의 줄이 표준이다. b7도, b2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D Phrygian Scale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4] Phrygian Scale

2.5 이오니안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로 알고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오니안 스케일이다. b3도, b7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한 곡을 하나의 Key로 보는 조성 음악이 아닌 각각의 마디를 독립적으로 보

는 Mode 음악으로 다른 Key에서 조성을 빌려오게 되는 Modal Interchange로 해석된다. 재즈, 팝 음악에서 많이 사용된다. 드물게 락 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를 프로그레시브 락, 메탈이라 한다. 4도 Major에서 이전까지는 D Min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했지만 D Ionian Scale이 사용되어 2도가 나오게 된다. 6도는 Avoid Note로 8분음표 이상 쓰면 코드와 부딪치지만 8분음표 길이 안에서는 경과음으로 쓰이게 된다.반음계의 크로메틱 어프로치 노트도 자주 사용된다. Tension Note 13th에서 5도 Chord Note로 이어지는 과정은 불안정한 Tension Note 긴장감을 풀어주는 Tension Resolve로 해석된다. 이러한 Voicing은 Jazz 연주에서 자주 보이며 단순한 Chord에서 탈피하여 다채로운 색채를 더하게 된다. Jimmy Page는 Jazz Improvisation으로 Rock 음악의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하고 있다. 해머링 온, 플링 오프, 밴딩, 업, 다운 주법을 사용하여 일렉기타 에서만 쓸 수 있는 줄을 올리고 내리는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연속되는 음을 더 부드럽게 연주 가능하게 된다.



[그림 5] Ionian Scale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지미 페이지 Rock And Roll ' 작품에 나타난 기타 솔로에서 스케일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는지 살펴 보았다. 다양한 이펙터와 기타, 베이스의 유니즌 리프로 인하여 배음을 증가시키는 더블링 효과를 연출하였다. 5음계의 펜타토닉 스케일을 벗어나 각각의 마디를 독립적으로 보는 모드 스케일 사용하게 된다. 이는 재즈 화성학을 적극 활용하여 퓨전 음악의 면모를 보여준다. 열악한 1970년대 녹음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피킹의 강약과 볼륨주법, 바이올린 활 등을 이용한 연주법은 후대의 뮤지션 들 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앰프의 볼륨을 최대한 올리는 크랭크 업 사운드의 결과로 현재의 오버 드라이브, 디스토션 등의 다양한 이펙터 가 나오게 된다. 컴퓨터 음악의 발달로 인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리얼 악기를 사용한 사운드 가 팝 음악의 중심에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패턴, 유행하는 음악을 카피하여 단기간에 돈을 버는 수단에서 벗어나 음악인들이

자립하고 본인들이 작사, 작곡하여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어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나오게 되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 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1] Led Zeppelin IV Platinum Guitar. Alfred. 2013.
- [2] Keith Shadwick. Led Zeppelin, 을유문화사. 2011,
- [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3799> Blues Scale. 2002.
-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396> Pulling Off. 2002.
-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618> Hammering On. 2002.